



[지속가능] BMW, 젓소 메탄가스 활용 전기 생산 협력 확대

- 메탄가스 배출 저감은 물론 전기자동차 전력 공급에 활용



BMW 그룹이 에너지 재생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낙농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BMW 그룹은 캘리포니아주 친환경 연료회사와 함께 전기자동차 (EV)에 사용할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지역 낙농가와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젓소의 트림과 방귀는 물론 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수거한 후 혐기성 소화조를 통해 전력을 생산해 메탄가스 배출 저감은 물론 연간 17,000대 이상의 전기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농가에게도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BMW 그룹은 향후 미국 전역 목장에 더 많은 혐기성 소화조를 설치하고 전력 생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driven.co.nz, 11월 10일자 >

[시장동향] 싱가포르, 미세조류 기반 대체 유제품 개발

- 미세조류 단백질 분말 활용 반경질 치즈 및 스프레드 제품 생산



싱가포르에서 미세조류를 활용해 치즈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미세조류 : 단세포 형태의 크기가 매우 작은 생물집단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불림
식품생산 전문기업인 소피스 바이오뉴트리언트(Sophie's Bionutrients)는 유당불내증을 앓고 있는 소비자들의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미세조류 원료 우유를 개발한데 이어 최근에는 대체 치즈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미세조류 단백질 분말을 사용해 천연 체다치즈의 감칠맛과 특 쏘는 맛을 모방한 반경질 치즈와 발라먹는 스프레드 제품을 생산하는데 성공했으며, 일반 치즈와 비슷한 풍미와 질감을 구현해내기 위한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현재 이 업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안전원료인증(GRAS)과 유럽식품안전청(EFSA)로부터 식품성분 및 보충제로 인증 받은 미세조류 균주를 활용해 우유 및 유제품은 물론 햄버거 패티, 단백질 크래커 등 다양한 대체식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dairyreporter.com, 11월 11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